



KAWASAKI CITY  
川崎市

##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53

편집·발행 :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2015년 3월 31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간단한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 가와사키시민축제에 참가했습니다!

11월 1일 ~ 3일에 개최된 제 37회 가와사키시민축제의 첫날과 둘째날에 올해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첫날은 추운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었지만, 저희 텐트에서는 세계의 따뜻한 차 시음과 매년 관례행사인 어린이들을 위한 낚시게임 등 시민들과 교류를 깊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낚시게임은 대표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으로 된 봉투 안에 과자나 문구용품, 방재물품 등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낚시대를 잡고 어떤 물고기를 낚을까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둘째날은 활짝 개인 가을하늘이었습니다. 이 날은 세계의 차와 낚시게임과 함께 판넬을 이용하여 대표자회의의 활동소개와 대표자들이 가지고 온 장식품 등의 전시도 했습니다. 관례의 퍼레이드에서는 민족의상을 입고 비누방울과 저글링 등 퍼포먼스를 하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로 힘차게 대표자회의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텐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한편, 축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노다 이즈미 베아트리스)

###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에 참가했습니다!

11월 8일(토), 사이와이시민관에서 다문화페스타 사이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외국인대표자회의의 대표자들은 11월 16일(일)에 개최된 오픈회의의 PR도 겸해서 참가하여 세계의 퀴즈와 가위바위보 대회에서 많은 시민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에서는 일본, 중국, 남미의 차를 맛 볼수 있었고 종이접기와 서예의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는 민요와 다양한 장르의 댄스공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의 민족무용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많은 분들이 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공 민숙)

##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4 년도의 오픈회의가 11 월 16 일(일)에 나카하라시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픈회의는 평소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대표자이외의 참가자로 부터 의견을 들어서 대표자회의의 심의에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20 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14 시부터 17 까지 약 3 시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전반에서는 대표자인 공 민숙씨와 케젠구아 에드워드씨가 제 10 기에서 예정하고 있는 심의테마의 소개와 대표자회의의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초발표를 했습니다. 참가자의 앙케이트에서는 「대표자가 현재 의논하고 있는 테마를 과거 때부터 소개해서 아주 이해하기 쉬웠다. 과거의 제언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시점을 포함해 보다 나은 제언을 만들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의 후반에서는 대표자경험자 김 희숙씨, 나카모리 주리아 미도리씨, 왕 평씨, 현재 대표자 소노다 이즈미 베아트리스씨, 일본대학 준교수 오카모토 나오코씨, 코디네이터 오차노미주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 미야지마 타카시씨를 초청하여 「대표자회의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제 10 기를 맞이하여 다시 의미를 묻는다」라는 타이틀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대표자회의에 깊이 관계해 온 이분들로부터 각자의 경험과 함께 귀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은 마음이 담긴 메시지와 어드바이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가자들로 부터 「기초발표와는 다르게 패널리스트인 당사자분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도 듣는 등 평가가 좋았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 전부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참가자로 부터 질문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를 깊이 가지는 것도 이 회의의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회의종료후 교류파티를 열어서 많은 일본인, 외국인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유익한 교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대표자회의의 멤버가 소개한 기초발표와 후반부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대표자회의가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성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시민으로서 해결만 원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주위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대표자회의와 외국인에 대해서 엄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국인 독일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쳐서 외국인시민의 사회통합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입장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제가 일본에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태어난 장소와 피부색깔, 생각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게 아닐까요.

(디토마 다니에라)

## ◇부회 보고◇

### ■ 복지교육부회

복지교육부회에서는 지금까지 유유아양육과 학교, 고령자의 간병, 연금과 보험의 테마에 대해서 심의해 왔습니다. 1년째의 심의도 끝났고, 드디어 2년째에는 제언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오픈회의에서 받는 귀중한 의견도 참고하면서 또다시 멤버들이 의견을 나누어 제언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언을 정리할 때에는 「모든 외국인시민의 대표로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부회 부회장 소노다 이즈미 베아트리스)

### ■ 사회생활부회

사회생활부회에서는 3개의 테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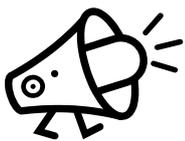
첫번째는 간호·간병분야에 대해서 입니다. 사무국으로 부터 다카츠시민관에서 외국인의 취업상담회·면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모시는것은 어떨까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창업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가와사키시에는 「창업포럼」과 「가와사키기업가 쥬크」, 「창업지원세미나」 라는 지원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이 테마는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심의테마를 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연금제도는 복잡합니다. 사무국의 설명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한 편으로 새롭게 나온 의문점도 있습니다. 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대표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제언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심의스케줄도 전반이 끝났습니다. 멤버들과의 팀웍도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전원이 일치 단결하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회생활부회 부회장 렌 차린)



## 회의를 방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 대표자회의일정—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토큐도요코센·메구로센 모토수미요시역에서 도보 약 10분)

약도: <http://www.kian.or.jp/accessmap.shtml>

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회	제1일	4월26일 (일)	제3회	제1일	10월18일 (일)
제1회	제2일	5월24일 (일)	제3회	제2일	12월6일 (일)
제2회	제1일	6월21일 (일)	제4회	제1일	1월17일 (일)
제2회	제2일	9월13일 (일)	제4회	제2일	2월14일 (일)

회의는 누구라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대표자회의를 보러 오세요!

\*\*\*\*\*

오픈회의는 11월 15일(일)에 개최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입니다.

## ■ 칼럼 세계의 경축일——「메이데이」라고 아세요?

4 월이 되어 새로운 년도가 막 시작했는데, 벌써 골든위크가 기다려집니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같이 「헌법 기념일」과 「미도리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일본과 같이 회사나 학교가 쉬는 날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5 월 1 일 「메이데이(May Day)」로 불려지는 것을 아세요?

메이데이는 원래 유럽에서 봄에 작물수확이나 여름의 풍작을 기원하여 축하하는 5 월축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날(Labour Day)」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약 120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당시, 산업혁명에 의해 노동자의 1 일 평균 노동시간은 12~14 시간으로 아주 혹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메이데이가 「노동자의 날」로 정해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까지는 5 월에 메이데이를 포함한 7 일연휴라는 장기연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3 일간의 짧은 연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메이데이이지만, 세계에서는 80 개국 이상이 경축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메이데이 외에도 많은 경축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의 경축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재미있는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 겐소)



가와사키시의 정보

###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의식실태조사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국적과 민족, 문화의 차이를 풍요롭게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며 자립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2014 년도에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시민의 의식과 실태, 니즈 등을 파악하여 시의 정책에 살리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의료·보험, 양육·교육, 지역활동·시정참가, 일, 행정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내거주의 18 세 이상의 외국인시민(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5 천명의 분들에게 조사표를 우송하여 그 중에서 921 명으로 부터 회답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가와사키시의 홈페이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된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 「보고서 <개요판>」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가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URL :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4-0-0-0-0-0-0-0-0.html>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이는 현 종이 펄프배합율 7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